

하나님을 한소리로 기리는 무리

# 한기림!



제 06 - 24 호

하나님을 한소리로 기리는 무리의 노래~

# 한 기 림 의 노래

안강현 곡

하 나 님 을 한 소 리 로 기 리 는 무 리 그 의  
 이 름 은 한 기 림  
 세 상 모 든 사 람 에 게 주 의 이 름 을 전 파  
 할 주 의 일 께 너  
 한 기 림 너 한 기 림  
 주 님 을 찬 양 하 라 주 의  
 말 씀 따 르 고 행 할 주  
 의 자 녀 들 아



# 전릉이의 中國견문록!!

## 첫 번째 여행 ③ - 소매치기

“나 소매치기 당했다.”

혼자 짜모루 시장에 다녀오겠다던 지원이가 말했다. 조심한다고 했는데 만원버스에서 소매치기가 지갑을 빼간 것이다. 덕분에(?) 기차표와 거류증, RMB300원(한화45000원 정도)까지 몽땅 없어졌다. >o<;

중국에서는 절대 가방을 뒤로 하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소매치기가 정말 많다. 지갑은 당근이요 전자사전이며 핸드폰이며 눈 깜짝할 사이에 날 새게 가져간다. **중국 여행을 갈 사람들이여! 가방 조심하기를!!** 기차값은 마련해 줬지만 결국 지원은 기념품 하나 없이 남경으로 돌아갔다는 마음 아픈 이야기T^T (지원이가 가려던 짜모루 시장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 祝我生日快樂!!

태어나서 처음으로 타국에서 맞이해보는 생일이었어요~ 12시 정각에 온 축하를 시작으로 아침부터 내리 걸려온 가족 & 친척들의 전화와 생일 맞이 특별 발표 수업(T^T), 그리고 아이들의 눈에 띄는 써프라이즈 파티 준비까지..하나하나 재미있는 시간들로 하루를 보냈지요. 멋진 케익을 준비해 준 룸메 언니와 녹색을 좋아한다며 모든 선물을 녹색으로 해 준 친구들과 (무엇보다 감동이었던 건 외국 친구들과 선생님들까지 함께 써준 롤링페이퍼!) 맛난 저녁(갈비 정도? ㅋㅋ)도 먹고 에이짱의 성년축하 파티에 참석해서 열거에 함께 축하도 받고, 암튼 칩오로 정신없고 풍성한 생일 일정이었던 것 같아요~ 헤헤\*^^\*



같은 날 태어나서 내 동생 삼았던 에이짱과 함께 乾杯~



한,중,일,독.러 친구들이 만들어 준 페이퍼 1년 내내 벽에 붙여 두었었다.

## 두 번째 여행 - 등산절

### ☆05. 4. 23 diary☆

이번 등산절(登山節)- 매년 4월 넷째주 토요일 청도시에 있는 모든 산의 입장료가 미오페이(免費)인 날-에 학교에서 학생들을 라오산(老山)으로 데리고 가기로 했다. 중국은 관광비가 식비의 크기는 10배까지 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냥 넘어갈 날이 아니라 는 건 알겠지? 게다가 학교에서 친히 산까지 모셔간다잖아~~~ 완전 기쁜 마음으로 따라나섰음!!

라오산이 '태산이 높다하되 하늘아래 뉘이로다'의 태산이나 '올라갈 때는 혼자이지만 내려올 때는 친구가 된다는 황산보다는 유명하지 않지만 아니지만 중국 사람들에게 무언가 영험한 기운을 주는 산이다. 공자, 장자라든가 한부제, 진시황, 같은 사람들이 조각되어 있음~ 신기한건 거기 있는 돌 또는 절벽을 그대로 조각하여 나보다 훨씬 큰 조각상을 만들었다는 것, 역시 중국사람들이야..ㄷ

#### 내가 등산을 좋아하는 이유

산은 끈기를 주거든.

처음에는 아름다움에 반해서, 다음에는 설렘으로, 약간 숨이 찰듯싶을 때서야 등산로가 시작된다는 팻말이 보여. 그럼 그 때부터 고민하지. 도전 or 포기..

당연 도전하게 돼. 그리고 올라가면서 백만 번도 후회와 고민과 선택을 반복하지만 처음에는 시작한 것이 아까워서, 그 다음엔 올라온 게 아까워서, 마지막엔 정상에 다다랐을 때의 그냥 둘 수 없는 뿌듯함과 시원함을 느낄 수 없는 거지.

다행히도 아무것도 없는 플라스틱 산이 아니라 때때로 부는 바람과 적당한 나무 그늘에도 감사하며..

등산을 하고 나면 왠지 힘차게 세상을 살 수 있을 것만 같다.

#### 오늘의 소감!

- 평생 볼 중국사람 오늘 다 만난 것 같다. 사진으로 못 찍음이 아쉬울 따름;
- 몸은 피곤, 마음은 엄청 뿌듯 〇\_〇



7살밖에 안 된 애가 어찌나 종명한지!  
어른보다 더 빨리 오르는 재주를 보여주었다.



그렇게 험험거리고 올라갔으면서 정상에  
가니 켈로그도 안 먹었는데 호랑이 기운이  
솟아난다! 사진으로 안 보이지만 사실  
저게 낭떠러지에 뚝 튀어나온 돌 부분이  
였다. -\_-;



꽤 많이 간 것 같은데 정상에 오르는  
사람은 저들 뿐이었다. 자랑스러운! 왼쪽  
같은 반 친구2명 + 내몸에 + 나  
+ 제일 오른쪽 아놀드슈탈제네거 나머  
지는 모두 뺨공쓰(사무처)가족들 몸메  
는 착해서 험한 모자 계속 쓰고 있다.



조각상 하나 태연하게  
못 지나치는 따라쟁이 본성



큰 행사라 공안들이 왔다, 서울 사람 다 온 수만큼 왔을거다.  
게다가 죄다 은행에서 험한해준 빨간모자를 쓰고 (우리도 -\_-)

# ✎ 한기림 집중탐구

1. 파트, 학년, 이름을 알려주세요!  
알토 3학년 이지현
2. 생년월일+별자리  
1985 11 16 전갈자리
3. 별명  
앗 별명이 없네요 ㅋㅋ
4. 언제 한기림 대원이 되었나요?  
1학년때요~ 2004년 여름쯤?
5. 현재 하고 있는 일은?  
학생이지요 ㅎㅎ
6. 지금 자신의 최대관심사는?  
진로문제와 기말고사 영어공부 하계선고 기타 등등
7. 자신의 보물 호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와의 모든 인연들이 가장 소중한지요  
함께할 수 있다는 것 만으로 >\_<
8.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은?  
음..... 길찾기? 또는 진짜 맛있게 먹기 ㅋㅋㅋ
9. 자신이 가장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뭔가를 외우는것 & 달리기



10. 잠버릇은 무엇인가요?+\_+  
한여름에도 이불을 턱밑부터 발아래까지 덮고 자야 해요 ㅋㅋ
11. 추천하고 싶은 맛집이 있나요?  
교회뒤에 세종아케이드 지하에 소공동 뚝배기집이라고 있는데  
거기 '오징어야채'라는 걸 꼭 드셔보시길!  
콩나물과 오징어로만 만든 메뉴인데 진짜 짹짹 (먹는 얘기에 흥분..)  
아, 주일엔 문을 안연답니다.



12. 나는 화날 때 이렇게 한다!  
혼자 끄끙 앓다가 기운이 쭉 빠져서 자버려요
13. 최근 있었던 일 중 가장 창피했던 일!  
1학년 동아리 후배들이 보는 앞에서 계단에서 넘어진일-\_-T
14. 지금 자신의 핸드폰 액정에 쓰여 있는 말  
귀기울이기
15. 나는 ○○○다.  
자고싶
16. 한기림에서 평소에 궁금했던 사람은?  
알토 뒷자리에서 저희를 힘들게 하시는 영호오빠요 ㅋㅋㅋ
17.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여름방학 1분도 허비하지 않고 알차게 보낼 수 있게  
그리고 항상 주님의 향기를 흘러보내는 사람이 될 수 있게 기도해주세요~
18. 한기림에게 하고 싶은 말  
한기림 사랑해요♡

공부합시다

# 일본어 공부 하세요!(16)

김순정(S7)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부르는 노래에 또다시 도전해 보요!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난번 곡을 통해서 조사를 다 알았으니 단어들만 다뤄도 이제 충분하겠죠? ^^ 그럴 하나하나 시작해 볼까요? 당신 - きみ(키미). あなた(아나타)랑은 다른 느낌의 표현. ‘그대’의 느낌이 강한.

은 - は(와). 이제는 따로 설명드릴 필요없겠죠? ^^

사랑 - 愛(아이). 여기서 살짝 응용을 하자면, 지난번에 한 ‘예배하



다’에서 ‘<sup>す</sup>る’만 붙이면 ‘<sup>あい</sup>愛<sup>す</sup>る(아이스루)’가 되어 ‘사랑하다’가 되겠죠. 여기서 몇가지를 덧붙이자면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을 할 때는 진행형 표현을 써서 ‘<sup>あい</sup>愛<sup>して</sup>る(아이시페루)’라고 합니다. 또 지난번에 언급했던 ‘<sup>す</sup>好き<sup>です</sup>(스키데스)’를 써서도 사랑한다는 의미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니가 좋아’라고 고백할 때는 ‘<sup>す</sup>き<sup>みの</sup>こ<sup>と</sup>が<sup>す</sup>き。 (키미노 고토가 스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받다 - <sup>さ</sup>れる(사레루). 살짝 문법적인 것이 추가가 되는데, <sup>あい</sup>愛<sup>す</sup>る(아이스루)의 수동형입니다. 그래서 <sup>あい</sup>愛<sup>さ</sup>れる(아이사레루)가 ‘사랑받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랍니다.

위해 - <sup>た</sup>めに(타메니).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너를 위해’라고 말하고 싶으면 ‘<sup>き</sup>み<sup>の</sup>た<sup>め</sup>に(키미노 타메니)’라고 하면 되겠죠?

태어나다 - <sup>う</sup>まれる(우마레루). 이거 역시 <sup>う</sup>む(우무)의 수동형입니다. ‘<sup>う</sup>む(우무)’가 ‘낳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일본어 역시 영어랑 마찬가지로(bear-be born) 수동형으로 표현해서 태어남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 노래에서는 태어난 거니까 과거형인 ‘<sup>う</sup>ま<sup>れ</sup>た’!!

## \*일본어 tip

호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보통 서로 이름을 많이 부르죠. 친한 친구나 아랫사람(나이로^^)에게는 ‘석영이, 은혜’ 등으로. 윗사람에게는 ‘OO언니, 오빠, 누나, 형’ 등으로 부르게 되는데요.

일본에서는 보통 성으로 부릅니다. 예를 들어 貴島茂(키지마 시게루)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실제 제 일본 친구 이름입니다^^)

성인 貴島(키지마)만 써서 貴島さん(키지마상)이라고 합니다. 친한 사이인 경우에는 물론 이름을 이용해서 茂ちゃん(시게루짱)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嶋さん(김상)이라고 하면 곤란해질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사람을 부를 때는 이름 전체에 ‘<sup>さん</sup>상’을 붙여서 부르거나(예: 허선영<sup>さん</sup>). 이름 뒤에만 붙여서(예: 서연<sup>さん</sup>) 부르기도 합니다. 참고하세요. 일본에서 만나 대화하게 될 분들의 성이라도 꼭 메모해 놓으시길^^

혹시 혼자서 일본어 공부하실 분들.

다락원 사이트 추천합니다. [http://www.ddnet.co.kr/book\\_vod/basicjapanese.asp](http://www.ddnet.co.kr/book_vod/basicjapanese.asp)

무료 동영상 강좌도 있으니.. 함께 해 보세요^^

# 일본 단기 선교

강사 박미애(전 일본선교사)

## I. 단기선교

### 1. 단기선교의 정의

단기선교는 짧게는 1주간, 길게는 1년 정도 일정한 선교지에서 현지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선교지에 머물면서 선교지 이해와 선교활동을 하는 것이다.

### 2. 단기선교의 특징

- 1) 중요한 현장 중심 훈련이다. 지식위주의 훈련에서 배울 수 없는 인격훈련, 팀워크, 실제적인 언어 및 타 문화권 이해에 대한 경험이 제공된다.
- 2) 현지 선교사와 협력하여 단기간 많은 인력으로 집중적인 사역을 전개할 수 있기에 사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선교사의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으며, 현지 교회들에게 격려와 도전을 줄 수 있다.
- 3)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가장 강력한 도구중의 하나는 기도이며, 단기선교 팀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 중의 하나가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는 모든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

### 3. 단기선교의 한계

- 1) 현지 선교에 장애가 될 수 있다.-현지인들의 문화와 관습의 차이
  - 2) 훈련과 목회적 돌봄이 부족하다.- 짧은 기간이지만 심리적, 영적으로 어려운 시기
  - 3) 짧은 기간, 피상적인 경험으로 인한 선교지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판단
- \* 단기선교는 유행이나 영적 만족의 수단, 혹은 한국교회의 교세나 문화, 음악을 자랑하는 활동이 아니며, 선교사를 만나고 선교지를 구경하는 여행은 더욱 아니다. 분명한 목적과 밀도 있는 사전훈련이 없는 단기선교는 때때로 엄청난 재정낭비와 선교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 4. 준비는 어떻게?

- 1) 단기선교의 분명한 목적과 목표 설정
- 2) 목표지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사전준비
- 3) 영적인 성숙도와 구령의 열정을 가지라!
- 4) 실제적인 훈련
- 5)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려는 마음자세-‘선교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 5. 단기선교의 결과

- 1) 선교사의 삶과 사역을 통해 선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게 된다.
- 2)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경험적 신앙을 몸에 익히게 된다.
- 3)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며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

- 4) 팀 사역을 통해 섬기는 자세를 배우게 된다.
- 5) 영적전쟁 속에서 중보 기도의 능력을 배운다.
- 6) 단기간의 경험이지만 영적부흥을 체득할 수 있다.
- 7) 보고와 간증을 통하여 교회에 선교의 열기를 전할 수 있다.
- 8) 현지의 선교사와 그들의 가족을 이해하고 격려할 수 있다.
- 9) 장기사역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 10) 소속교회로 하여금 '보내는 교회'가 되도록 한다.

## 6. 단기선교에서 가능한 사역들

구제 사역, 어린이 사역, 찬양 사역, 교회 개척, 비전 트립, 전도 사역, 영어 캠프, 리서치 사역, 의료 사역, 이미용 사역, 노동 사역, 중보기도, 의료봉사, 기술교육, 목회활동 등

## 7. 단기선교에서 행해지는 잘못된 원칙들

- 1) 우리는 영적인 목적으로 왔다.
- 2) 매일 하는 기도와 말씀묵상의 포기
- 3) 조직적으로 준비한 떠나기 전의 계획을 고수하라!
- 4) 선교사들의 실수를 지적해서 그들을 도우라!
- 5) 단기선교는 이성교제를 하기에 완벽한 기회이다.
- 6) 현지 언어를 귀동냥하느라 애쓰지 말라!
- 7) 팀 동료의 실수를 그 자리에서 지적하라!

## II. 일본에 대한 이해

### 1. 자연환경

- 1) 면적 : 약 37만 8천Km<sup>2</sup>(한반도의 약 1.7배), 북위 28도-44도
- 2) 지형 : 남북의 길이가 3천Km<sup>2</sup>가 되며, 4개의 큰 섬(혼슈, 홋카이도, 큐슈, 시코쿠)과 약 3천개의 작은 섬으로 구성, 환태평양 지진대에 위치하며, 산지가 많고 농경지는 13%전도이다.
- 3) 기후 : 해양성 온난 기후 지대이나 장소에 따라 아한대기후가 나타나기도 한다. 매년 태풍이 수차례 지나가며 강우량은 1,000-3,000mm, 고온다습하다. 남북의 기후 차이가 매우 심하고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하다.

### 2. 인문환경

- 1) 인구 \* 1억 2,780만 명(2004년9월 유엔인구기금발표, 세계 9위)
    - \* 인구밀집지대는 도쿄중심의 관동평야지대와 오사카와 나고야를 중심으로 하는 중부지역 3곳이다. 모두 태평양 해안에 위치하고 있다.
    - \* 도쿄는 인구 1,900만의 세계 제3의 도시, 아시아에서는 제 1의 도시이다.
- 평균수명 : 남자 77.9세, 여자 85. 1세(세계 제의 장수국가)

## 2) 인종과 언어

인종 : 일본인 99.3%, 외국인 0.7%(한국인 약 72만 명, 중국인 약 5만5천 명)  
소수의 원주민들이 있지만 극히 적은 숫자이며 이미 동질화됨.  
최근 외국인 근로자들이 급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상용어 : 일본어, 문맹률 : 1%미만(세계 최저)

정치 : 내각 책임제 형태의 입헌군주국으로 천황은 형식상의 국가 원수이며, 다수당의 총재가 실질적인 정치의 최고 책임자(수상)가 된다.

문화 : 근대 이전은 중국 문화권에 속하고 한국으로부터 선진적인 중국문화를 받아들여 자국의 문화를 형성하였다. 1868년 전통적인 통치체제에서 벗어나 서구식 근대국가를 세우기 위해 메이지유신을 단행했으며, 서구 문명의 수입과 더불어 기독교가 들어왔다.

## 3. 종교환경

### 1) 종교관

(1) 다종교관 : 8백만이 넘는 신이 있으며 불교, 신도, 기독교 등의 전통적인 공식 종교를 제외한 신흥종교도 거의 10만에 가까운 것으로 추산하며, 종교 인구가 실제인구의 2배가 된다.

(2) 인간중심

(3) 신관

(4) 기복신앙

\* 종교정책은 헌법에 의해 종교의 자유와 정치종교분리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 2) 재래종교

(1) 신도 : 일본고유의 민족종교로서 신은 천조대신인데 전설적인 건국신화에 나오는 태양여신을 말하며, 상징물은 보석, 칼, 거울로서 권위의 상징이다. 조상신의 숭배와 자연숭배의 변신 사상을 기초로 하며, 천조대신은 유일신이 아닌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이다.

(2) 불교 : 백제를 통해 533년에 전래 역사적, 정신적, 문화적 측면에서 일본인의 정신에 큰 영향을 미쳤다.

## III. 일본 기독교에 대한 이해

### 1. 기독교 역사

카톨릭은 1549년 8월 예수회의 스페인 선교사 프란시스 사비에르에 의해 전파되었다. 개신교는 1858년 미일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 때를 기점으로 많은 선교사들이 입국하였다. 1859년 5월 미국 성공회의 리긴스 신부, 6월 윌리엄스 신부가 도착하여 나가사키에 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예배를, 1863년에 예배당을 지었다. 1859년 10월 미국 장로교회의 헵번부부 등이 도착했다.

### 2. 일본 교회의 현재

동경을 중심한 위성도시와 대도시에서는 미미한 추세로 성장하고 있으나 농촌과 산촌 지역은 감소현상을 나타내며 아직도 교회가 전혀 없는 읍 소재지는 70.6%지역이다. 기독교인은 52만(전인구의 0.41%) 정도, 교회 수는 7,772곳이며, 한 교회 평균재적은 67명, 예배출석은 44명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 사역하고 있는 외국인 선교사들은 2천명을 넘어섰고, 일본교회에서도 교단과 선교단체들을 통해 160여명의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했다.

### 3. 일본 선교의 문제점

- 1) 다신교, 다종교사상-신개념이 다르다.
- 2) 전통종교와 신흥종교의 득세
- 3) 무사도 정신과 집단 사고형(반성보다는 책임감, 개인보다는 집단)
- 4) 자유주의 신학과 교회
- 5) 안정된 사회와 세속주의
- 6) 사고하는 일본인
- 7) 화혼양재(和魂洋才)

### 4. 일본 선교의 이유와 전망

- 1) 민족적 과제 : “원수를 사랑하라”
- 2) 동일문화권의 장점 : 문화의 적응과 언어습득이 유리하다.
- 3) 세계 선교를 위한 재생산의 전망

### 5. 일본 선교에 대한 긍정적 현상(‘八百萬’: 기독교 잡지)-문화선교의 중요성

- 1) 직장인 간증모임, Group의 폭발적인 부흥
- 2) 경제대국 일본에서 홀레스들이 복음으로 구원받음
- 3) 폭력배들의 회개(‘미션바라바’)
- 4) Gospel House
- 5) 교회에서의 결혼식
- 6) 십자가 모양의 약세사리의 유행
- 7) T.V.의 복음적 프로그램의 방영
- 8) 대형전도집회

### 6. 일본 선교를 위한 제언

- 1) 일본문화를 이해하는 선교
- 2) 일본교회와 협력하는 선교
- 3) 일본교회와 교류를 통한 선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낚다가 하룻밤에 말라 버린 이 박령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죄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4장10절~11절).

일본 찬양 선교

일본 찬양 선교 연습 스케줄

	6/7	6/24	7/1	7/8	7/15	7/22	7/29	8/5	8/12	8/19	8/26
사도신경			○	○					○	○	
O nata lux	○	○	○					○	○		
할렐루야 우리예수	○				○						○
시편 42편(1악장)		○	○			○				○	○
Be thou my vision				○		○				○	
Elijah Rock	○					○			○		
사랑하는 자들아		○		○	○			○			○
내가 천사의 말을						○			○	○	
Festival Sanctus	○				○			○			
Praise His Holy	○	○							○		
시편 42편(7악장)		○	○			○		○			○
Akatombo				○	○	○			○		
Ride on King				○						○	
주 너를 지키시고					○			○			○
찬미가											

- 필요에 의해 파트 나눠 연습
- 9월에는 모든 곡을 암보로 계속해서 불러본다
- ‘찬미가’, ‘목마른 사슴’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등은 시간 날 때마다 연습
- 9월 16, 23, 30일 본당에서 연습

암기주일

# Praise His Holy Name!

6월 25일 찬양

- ① [ Sing till the power of the Lord come down-  
Shout Hallelujah! Praise His Holy name!  
Sing till the power of the Lord come down-  
Shout Hallelujah! Praise His Holy name!

(Men) 1절 :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2절 : Must Jesus bear the cross alone and all the world go free?  
No, there's a cross for everyone and there's a cross for me.

(Women) Jesus, Jesus, how I love Thee!

(Everyone) Shout Hallelujah! Praise His Holy name!]

① 할렐루야

② [(Soprano) Hallelujah! Praise His Name! Hallelujah, Lord! Praise  
His Holy Name!

(Alto) Let us Praise His Name, Hallelujah, Lord! Praise His Holy  
Name! (Hallelujah!)

(Men) Holy Jesus, Praise His Name, Oh! Hallelujah! Praise His  
Holy Name! ]

② 두번 더

③ [ Praise His Name! Praise His Holy Name, Praise His Name! Oh,  
oh, Praise His Holy Name! ]

③ 7번 반복 ▷ 1-2 : mf & 박수+렘버질, 3-4 : 박수 & 무반주(3 ff,  
4 mf 박수각개)

5-7 : 박수 & f-ff-fff

Praise Him! -End-



**\* 한기림 광고 \***

**1. 봉사학년 : 5학년**

-> 연습 후 뒷정리-악보&가운 정리, 쓰레기 줍기 등을 도와주세요!!!

**2. 119주년 창립기념음악예배 및 일본찬양선교를 위한 주중연습**

-> 6/17(토)부터 시작~9월까지 매주 토요일

->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 이번에 일본에 함께 못가시는 분들도 119주년 창립기념 음악예배와 일본찬양선교 곡 프로그램이 같으니깐요. 연습에는 함께 참여해주세요^^

추가연습 횟수는 약 16회, 금&주 연습을 포함하면 48회 정도입니다.

연습실 뒷편에 대형(?) 출석부 만들어 두었으니, 반짝이는 빨간별 스티커를 찾아^^:

매 금요일연습, 주중연습, 주일 연습마다 직접 본인 이름 위에 붙여 위로위로~ 쌓아가 주세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준비되었는지... 스스로 체크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 대출은 자제해 주세요. 쿨럭^^::

그리고 혹시 연습 참가율이 70% 이상이 되지 못하실 것 같은신 분들!

파트장에게 알려주십시오!!

**3. 알레프 찬양단 기획연주 'The Psalm' : 6/20(화) 오후 8시, 새문안교회 본당**

-> 이날 130여명 가량의 장애우를 초청하는데, 이분들이 이동하시는데 도움이 손길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지원해주실 분은 이세진(019-430-8279)로 연락해주세요^^

**4. 신입대원 정기오디션 : 6/23(금) 오후 7시 15분, 제2찬양대실**

**5. 한기림 홈페이지에 관계 형성 수련회 사진 업데이트 중**

->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 한기림 홈페이지에서 구경하세요. ^^::

**\* 한기림동정 \***

**1. 생가 조의를 포함합니다**

6/13(화) 부대장 이경준 집사님 모친상

**2.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6/14(수) 부대장 김영숙 성도님 따님

**3. 생일 축하합니다. ^^**

6/11(주) 박중희 집사님

**4. 임직사**

6/18(주) 김형일 피택장로님

**\*일분찬양선교 광고\***

**1. 여권은 6월까지 발급&재발급 해주세요!**

**2. 회비 일부 납부!!!!!!!!!!!!!! : 6/25(주)까지 10만원**

-> 국민293801-01-157085 새문안교회(한기림일분찬양)

**★ 멀티미디어부를 통해 좋은 글 공유해요 ★**

한기림지에 글을 올리고 싶은 분들은 [cjmall@hotmail.com](mailto:cjmall@hotmail.com) (정종우 형제)의 메일을 통하여 좋은 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한기림지에 글을 써주시는 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기림지 제작은 늦어도 토요일 오전중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주중에 글을 써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관찮지만 한기림지 인쇄해주시는 분이 우리 한기림지를 위해 주일에도 인쇄소 문을 열어 수고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저 한기림지 매주 받아 갈 때면 상당히 미안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성가곡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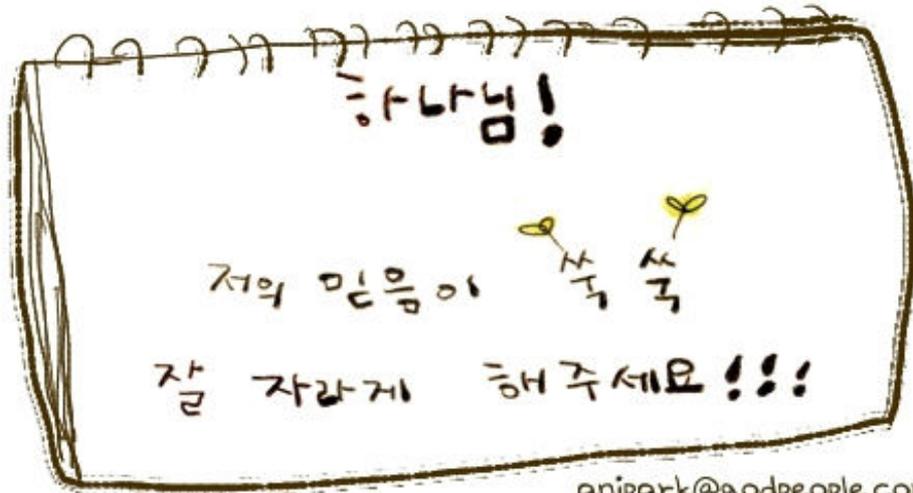
날짜	주 일 찬 양	헌금송	교 회 려
6월 18일	하나님께 찬송드리세 (예배성가2, p25)	새문찬양대	
6월 25일	Praise His Holy Name (복사본)	중창 3	북한선교주일
7월 2일	시편 42편 7악장 - 멘델스존	방민정	
7월 9일	할렐루야, 그 때에 - Stan Pethel	1,2학년 중창	

**발행인 김형일 장로**

**편집부장 정종우 편집차장 이지연2 이지현 김은설 최준현**

하나님.

말씀과 은혜의  
비료를 주세요.



지도 : 신정우 목사

지휘 : 권춘미 집사

대장 : 김형일 장로

반주 : 장연진 선생

대한예수교장로회 새문안교회 한기림찬양대

<http://hankirim.saemoonan.org>